



2026. 8. 18 (화)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당장 미국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에도 높은 유가와 채권공급 우려

미국채30년 5.26%로 2007년 금융위기 전 기록한 고점에 근접. 아이러니하게도 지난주까지 확인된 고용과 물가, 소비 지표는 우리가 예상한대로 다 예상을 하회했음에도 시장금리가 하락이 막히고 장기는 오히려 상승. 1)전쟁 리스크에 따른 유가 고공행진과 2)국채와 회사채 공히 늘어나는 공급에 대한 우려

현재까지 확인된 지표는 연준 매파들은 진정시킬 수준이라고 평가되나 유가가 계속 80달러대에 머물게 되면 8월 CPI는 공급물가 중심 반등이 불가피. AI발 회사채 급증과 미국채 신뢰성 문제도 고민이나, 당장 이번주 안이라도 유가가 WTI 75달러 정도까지 안정되지 못하면 금리부담 금융불안 확산될 수 있어

8월 금통위 close call, 현 유가가 그대로 가면 8월 인상 지지할 것

우리는 양호한 2분기 GDP와 7월 물가지표 확인 이후 8월은 연속인상보다는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부분(거인의 그림자)을 점검할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 그러나 지난 주말까지 미-이 전쟁의 긴장감은 더 고조, 유가가 급등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저로 오를 8월 물가에 대한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추정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면밀히 검토'라는 2명의 신중론자를 고려할 때 8월 금통위 결정은 아슬아슬(close call)할 것. 현재 유가가 8월 금통위까지 유지된다는 부담을 고려 이달 인상으로 전망을 수정하나 '선제적 대응'과 '1명 이상 동결의 소수의견' 기반 시장기대 터미널레이트 3.75% 상향 제한될 것으로 전망

Chart of the Week: 미국채30년 5.25%,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계속 높이고 있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채권전략

Analyst 윤여삼

yeosam.yoon@meritz.co.kr

RA 김영준

zerojoonk@meritz.co.kr

당장 미국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에도 높은 유가와 채권공급 우려

- 7월 미국 CPI와 PPI는 시장의 예상 범위 이내 일부 하회한 결과. 헤드라인 전월 대비 0.07% 증가와 근원 역시 0.21%에 그쳐 6월에 이어 소폭이나마 전년대비 물가가 반락하며 안정 경로 유지<그림 2>
- <그림 1>에서 부분별 물가동향을 정리하면, 에너지는 7월 유가반등 충격이 반기 정도 지연되어 유입됨에 따라 이달에도 전월대비 -1.5%로 재화물가 안정에 기여. 중고차 가격과 의료 서비스 물가 반등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 안정 흐름
- 근원 기준으로 서비스는 팬데믹 이후 바닥수준으로 다시 안정될 정도<그림 3>. 이는 근원 재화(goods)물가도 2025년 관세부과로 일부 상승했다가 다시 안정화되는 정도는 확인시켜 줌<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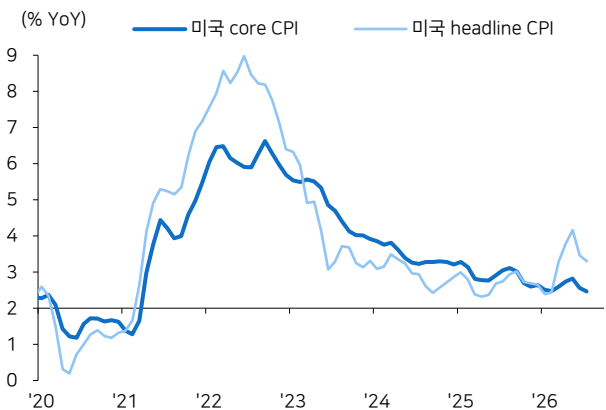
그림1 7월 CPI 예상에 부합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 정도는 점검

Table A. Percent changes in CPI for All Urban Consumers (CPI-U): U.S. city average

	Seasonally adjusted changes from preceding month							Un-adjusted 12-mos. ended Jul. 2026
	Jan. 2026	Feb. 2026	Mar. 2026	Apr. 2026	May 2026	Jun. 2026	Jul. 2026	
All items.....	0.2	0.3	0.9	0.6	0.5	-0.4	0.1	3.4
Food.....	0.2	0.4	0.0	0.5	0.2	0.2	0.1	3.0
Food at home.....	0.2	0.4	-0.2	0.7	0.1	0.2	-0.1	2.7
Food away from home ¹	0.1	0.3	0.2	0.2	0.3	0.2	0.3	3.4
Energy.....	-1.5	0.6	10.9	3.8	3.9	-5.7	-1.5	14.7
Energy commodities.....	-3.3	1.1	21.3	5.6	6.7	-9.5	-2.9	24.7
Gasoline (all types).....	-3.2	0.8	21.2	5.4	7.0	-9.7	-2.9	24.6
Fuel oil.....	-5.7	11.1	30.7	5.8	3.8	-9.2	-1.7	39.1
Energy services.....	0.2	0.2	0.4	1.6	0.4	-0.7	0.3	4.3
Electricity.....	-0.1	-0.7	0.8	2.1	0.6	-1.0	0.1	4.2
Utility (piped) gas service.....	1.0	3.1	-0.9	-0.1	-0.5	0.5	0.7	4.3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0.3	0.2	0.2	0.4	0.2	0.0	0.2	2.5
Commodities less food and energy.....	0.0	0.1	0.1	0.0	-0.1	-0.1	0.2	0.8
New vehicles.....	0.1	0.0	0.1	-0.2	-0.3	0.0	0.1	0.5
Used cars and trucks.....	-1.8	-0.4	-0.4	0.0	0.1	-0.2	0.4	-1.9
Apparel.....	0.3	1.3	1.0	0.6	0.3	-0.6	0.1	3.9
Medical care commodities ¹	-0.1	0.0	-1.0	-0.4	-0.7	-0.2	-0.6	-2.7
Services less energy services.....	0.4	0.3	0.2	0.5	0.3	0.0	0.2	3.0
Shelter.....	0.2	0.2	0.3	0.6	0.3	0.1	0.1	3.2
Transportation services.....	1.4	0.2	0.6	0.3	-0.6	-0.3	0.3	2.9
Medical care services.....	0.3	0.6	0.0	0.0	0.5	-0.1	0.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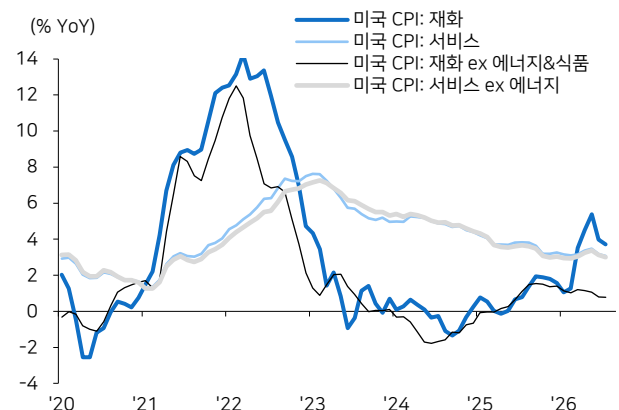
자료: US BLS

그림2 헤드라인 3.4%와 근원 2.5%로 반락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서비스물가 안정은 2차경로 확산 제한적 판단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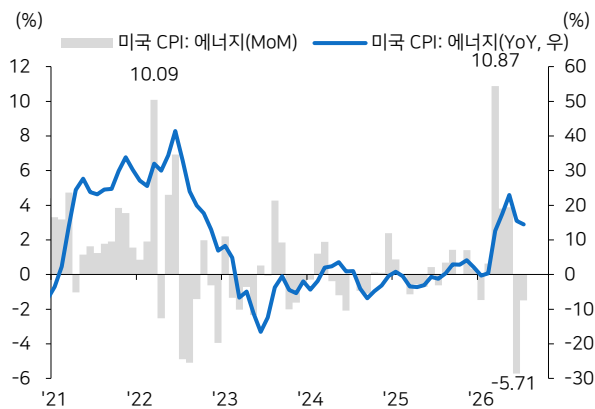
- 올해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는 충격이 없었다면(그림 4), 미국 물가안정 강도는 올해 연초 기대한 것보다 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2개월 연속 하락한 에너지 가격이 7월 반등한 유가&가솔린 가격으로 8월 염려되는 상황

- 반도체 가격상승에 따른 칩플레이션은 수입물가와 PPI 품목에서 민감도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최종 생산기업들이 아직은 소비자가격 전가를 본격화하지 않고 있는데다 CPI에서 컴퓨터와 부품의 비중이 1% 미만으로 낮아 CPI 전이 우려는 제한적으로 진행(그림 5)

- 에너지 가격의 높은 불확실성대비 미국 주택경기 부진으로 주거비관련 물가안정 경로는 명확(그림 6). CPI에서 주거비 비중이 30%대라는 점에서 PCE 10%대 대비 근원 CPI가 PCE보다 2% 중반 vs 3% 초반으로 역전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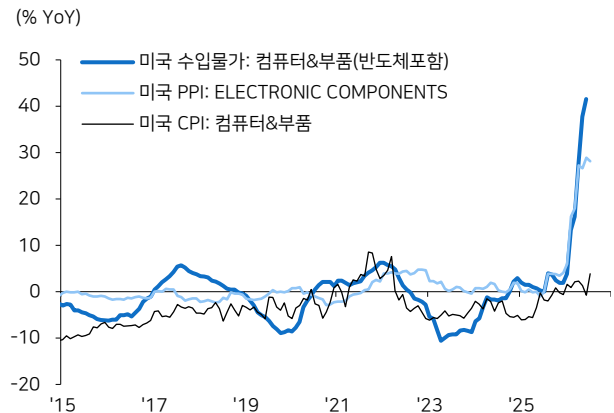
- 이를 반영하여 근원물가의 근원물가인 슈퍼코어 물가의 경우 이번달에도 월간 0.19% 상승에 전년대비 2.84%로 팬데믹 이후 바닥수준으로 내려옴(그림 7)

그림4 7월까지 가솔린 가격 안정 효과, 8월은 유가반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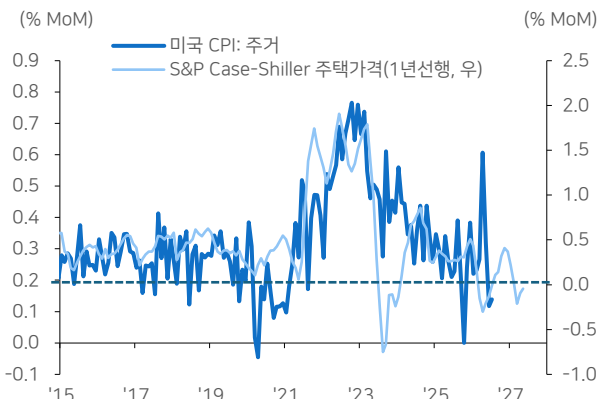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반도체충격 소비자물가 비중 낮아 전이 아직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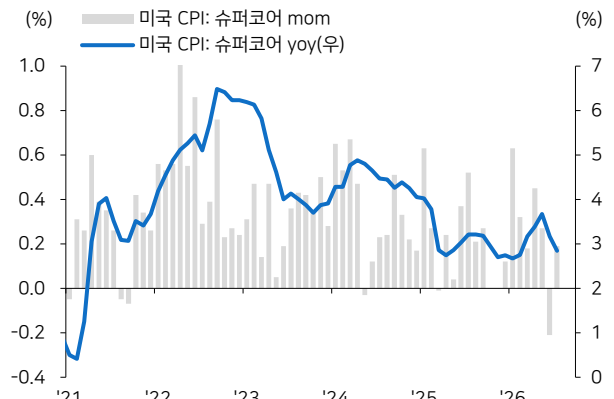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주거비 안정, CPI<PCE 원인



자료: US BL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핵심 근원물가는 작년 금리인하 실시한 시기 수준



자료: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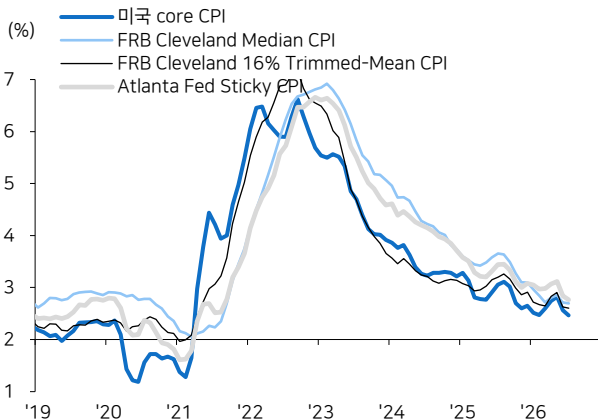
- 최근 연준 인사사이 매파와 비둘기 사이 눈앞의 물가보다는 추세물가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부각. 일단 주거비 비중이 높은 CPI의 경우 다양한 추세물가 기준 안정화 경로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그림 8>

- 반면, 의료비 비중이 10% 내외 수준으로 CPI보다 높은데다 생활물가 비중이 좀 더 높은 PCE의 경우 추세물가가 CPI와 달리 일부 반등하면서 매파들의 금리인상 논리에 활용되는 상황<그림 9>

- 중간에서 이를 중재하고자 뉴욕연준이 새롭게 제시한 PCE 추세 물가지표로 MCT(Multivariate Core Trend Inflation) 등장. 클리블랜드 연준의 Median PCE나 댈러스 연준의 Trimmed Mean은 매 시점의 가격 변화 횡단면 분포에 의존하는 방식인 반면, MCT는 시계열의 동태 구조 자체를 모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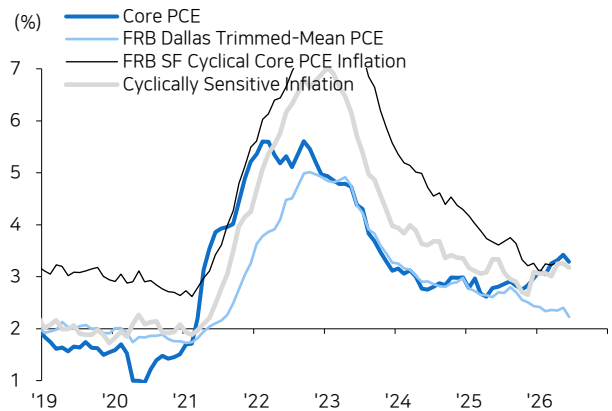
- 절사평균이 "이번 달 극단치를 잘라내는" 방식이라면, MCT는 "각 부문의 움직임 중 추세 성분만 추출하는" 방식이라는 게 개념적 차이

그림8 CPI 기준 추세물가, 일부 공급충격에도 안정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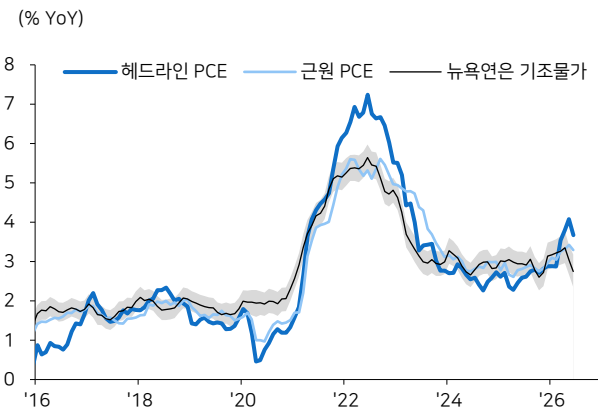
자료: AT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주거비 비중 낮은 PCE 추세물가 반등 부담 좀 더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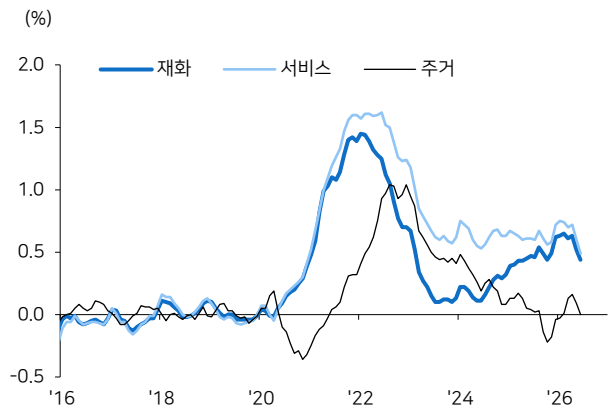
자료: AT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뉴욕연준 추천 PCE 추세물가는 기존 방식보다 안정



자료: NY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뉴욕연준 PCE 추세물가 안정 강도 주거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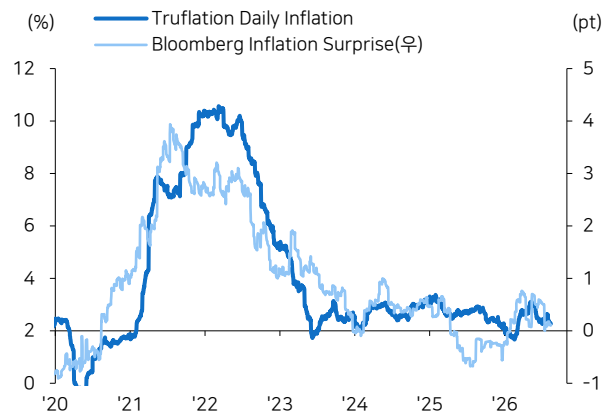
자료: NY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뉴욕연준의 MCT를 기준으로 아직 연준의 금리인상을 서두를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 현재 전반적 서비스 안정 기조가 유지될 경우 연준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정도로 평가. 우리가 주목하는 트루플레이션의 일간물가와 물가 서프라이즈 지수 기준 연준이 금리인상을 서둘러야 할 정도의 상황인지 의문(그림 12)

- 현재 물가는 공급충격에 따른 진성물가가 아니며, 서비스로 2차경로 전이도 명확하지 않음. 게다가 글로벌 물가 상승강도 역시나 6월부터 피크아웃 최근 다소나마 안정 경로로 진입(그림 13). 그럼에도 다소 과장하여 현재 시장의 인플레이션 공포는 'Hike Of the Oil, By the Oil, For the Oil'으로 이야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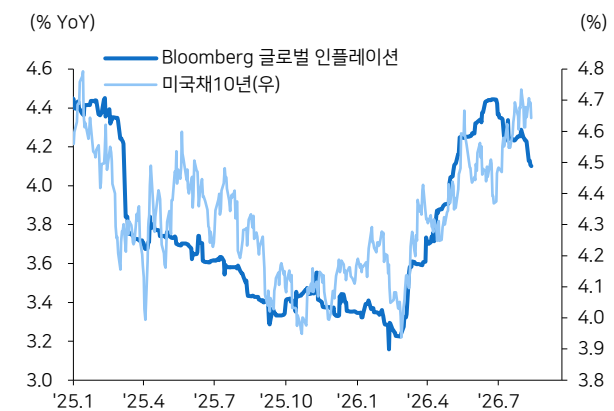
- 7월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재차 반등한 유가가 근거. 현재 유가가 4~5월 100달러 대비 낮다고 해도, 재차 반등하는 과정에서 2개월 안정된 물가가 9월 FOMC 직전 발표되는 8월 CPI에 반영될 위험이 존재(그림 14, 15). 지난 주말에도 미-이란 전쟁 우려는 더 강화되며 벌써 한달 넘게 80달러가 넘는 유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당장 물가 안정에도 시장금리가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

그림12 현재 인플레이션 확산이 진성은 아니라는 우리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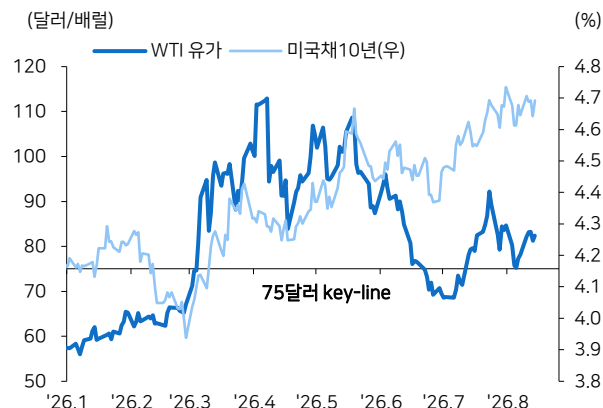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글로벌 물가부담 역시 하반기 들어와 일단 피크 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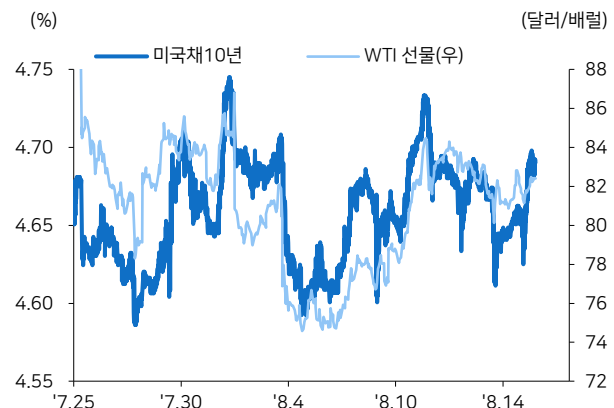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물가의 남은 숙제는 전쟁에 따른 유가의 향방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7월말 이후 일중 차트기준 유가가 금리민감도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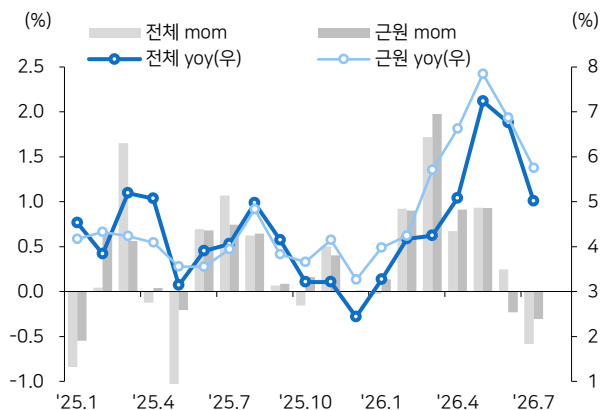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우리는 고용의 양적 위축과 전망에 인라인한 물가보다도 우리는 미국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 실제 월드컵 반작용이 일부 있었다고 하나 7월 미국 소매판매는 근원기준 전월대비 0.2% 정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했으나 마이너스를 기록, 예상보다 둔화(그림 16)

- 7월 소비부진 원인 1)아마존이 프라임데이를 7월에서 6월로 앞당기면서 경쟁 유통업체들도 동반 할인에 나서 7월 수요를 6월로 흡수. 2) 상반기 소비를 지지했던 대규모 세금 환급(tax refund) 효과가 소진. 3)가솔린 가격하락이 전체 소매판매 반락으로 연결. 4)자동차 판매감소 역시나 내구재 교체수요 둔화로 확인

- 근원적인 이유는 고금리, 에너지 가격 상승, 노동시장 냉각이 맞물리며 소비자들이 신중한 지출 태도로 전환된 것. 가계 저축률이 바닥 수준에서 실질 소득과 소비가 역전된지 반년이 넘게 지나 미국 소비의 취약성은 더욱 가중될 것(그림 17, 18). 때문에 우리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유통업체 주가를 중심으로 약세 흐름을 점검해 나갈 것(그림 19)

그림16 7월 소매판매, 우리 예상대로 컨센 하회한 마이너스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물가가 높으면 소비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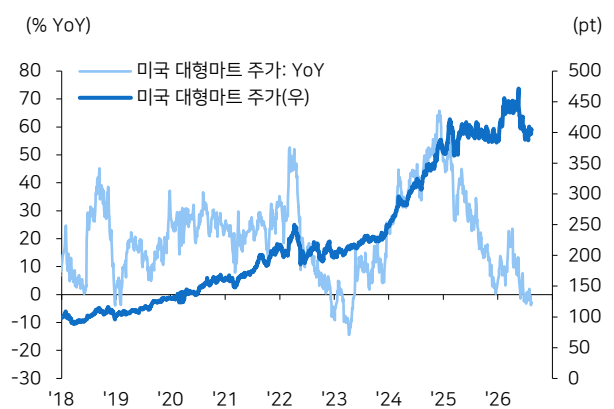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US BL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미국 가계, 위축된 소득대비 소비지속으로 누적된 부담



자료: US Census Bureau, US B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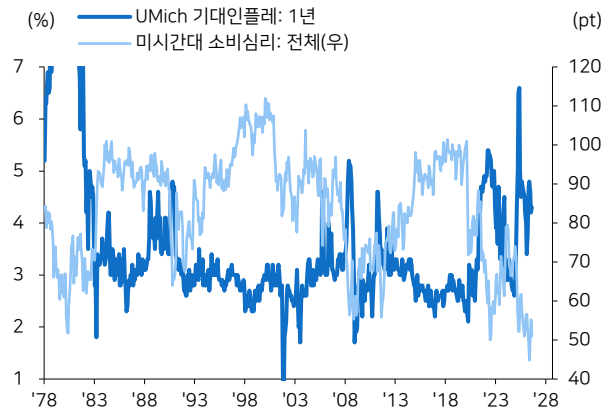
그림19 미국 유통업체 주가 지지부진, 소비 연관성 높을 것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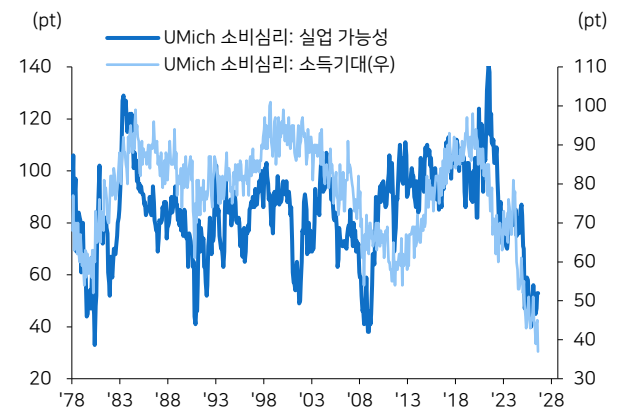
- 이는 8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속도치가 예상을 하회한 결과에서도 확인<그림 20>.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은 다시금 미국 소비심리를 역사적 바닥 수준에서 머물게 하고 있음
- 그리고 세부항목에서 이미 2022년 긴축으로 무너져 내렸으나 향후 고용과 소득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낮아져 있어 취약성이 더욱 강화<그림 21>
- 금리와 달리 방향으로 금융환경이 실물경제 모멘텀에 미치는 부담으로 우리는 3분기 미국 서프라이즈 지수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6월 중반부터 강조. 실제 최근 서프라이즈 지수는 빠르게 하락, 경기모멘텀 둔화 반영<그림 22>
- 이번 주 7월 FOMC 의사록이 확인되면서 연준의 집안 싸움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컸는지 확인 되겠으나 최근 확인된 지표의 둔화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 강도를 일부 낮췄다는 점에서 위협적 재료는 아닐 것<그림 23>

그림20 기대인플레이션 안정되지 않으면 소비심리 위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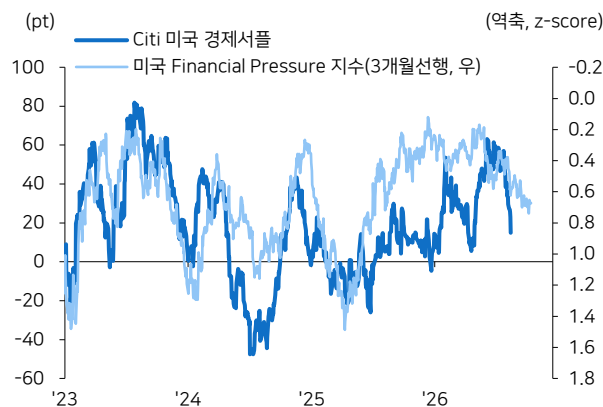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일자리와 소득에 자신감이 없는 미국 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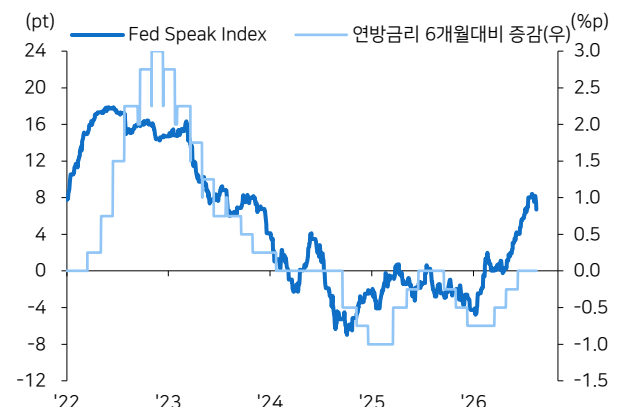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고금리와 달러강세 부담, 미국 경기모멘텀 둔화 시작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연준의 매파발언 강도 소폭 하락에도 매는 매다



자료: Bloomberg, Fe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다만, 지난 주 물가와 소비지표 둔화에도 유가가 높아서 금리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는 미국채30년 입찰과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서 이유를 찾는 목소리도 다수

- 30년 입찰은 5.2%가 넘는 금리에도 응찰률이 올해 평균수준보다 낮은 2.39%를 기록하여 수요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그림 24). 지난달 외국인이 위주인 비경쟁(indirect) 77.7%에서 66.8%로 낮아진 것도 리얼머니 약화를 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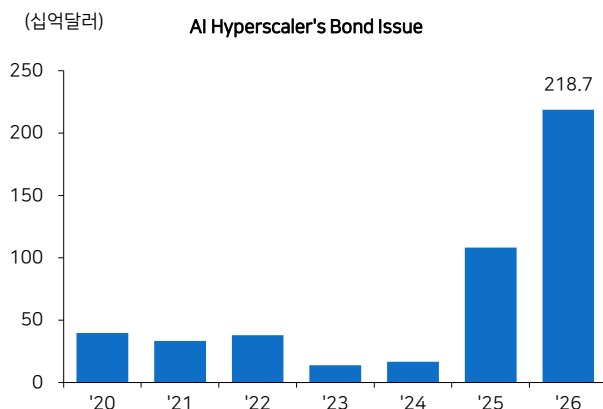
- 미국채 입찰도 부담이나 최근 부각되는 것은 AI 투자 관련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조달에 대한 노이즈도 크게 작동. 올해만 5대 하이퍼스케일러 중심 회사채 발행이 2,19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다(그림 25), 상반기 전체 회사채 발행 또한 전년대비 26%가 넘어섬(그림 26)

그림24 미국채30년 입찰, 응찰률 2.39배 아주 나쁘지 않지만 5.2% 금리에도 수요가 강하지 않아

30-Year Bond	1/2026	2/2026	3/2026	4/2026	5/2026	6/2026	7/2026	8/2026
High Yield (%)	4.825	4.750	4.871	4.876	5.046	5.020	5.058	5.216
When-Issued	4.833	4.771	4.878	4.874	5.040	5.008	5.059	
Stop (Tail/Through)	-0.008	-0.021	-0.007	0.002	0.006	0.013	-0.001	
Bid-to-Cover	2.420	2.660	2.450	2.390	2.300	2.330	2.440	2.390
Indirects % of Accepted	66.800	69.900	63.400	64.100	66.600	60.000	77.700	66.800
Directs % of Accepted	21.300	24.200	27.200	24.200	21.700	25.300	12.200	21.600
Dealers % of Accepted	12.000	5.900	9.400	11.600	11.700	14.700	10.100	
Indirects % of Tendered	33.500	37.300	32.600	32.800	34.500	31.500	38.100	
Directs % of Tendered	13.500	15.300	16.200	12.900	11.800	13.100	8.400	
Dealers % of Tendered	53.000	47.400	51.200	54.300	53.700	55.400	53.500	
Competitive Bids Accepted	21.968	24.962	21.970	21.973	24.938	21.959	2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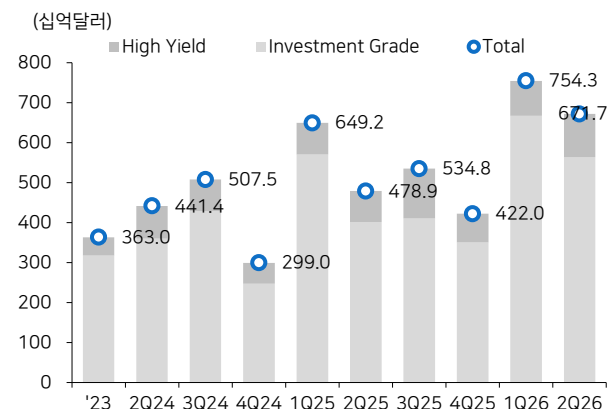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UST

그림25 하이퍼스케일러 올해 회사채 발행 급증



자료: LSE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2분기까지 미국 채권발행 1.4조달러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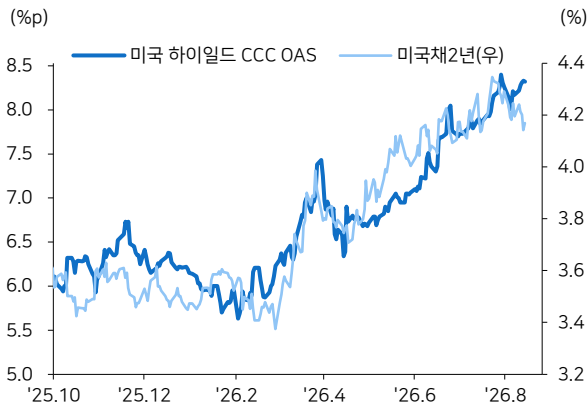
자료: SIFM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아직은 위험선호가 유효한데다 유동성 환경이 아주 긴축적이 않아 미국 증시와 하이일드 같은 고위험군 자산에 부담이 적은 편이나 CCC 등급 하이일드 스프레드는 계속 확대<그림 27>. 지난 주 지표둔화로 3년 금리가 전주대비 3bp가량 소폭이나마 하락했음에도 저신용 채권시장 긴장감 높게 유지

- 우리는 단기적으로 유가의 안정성 여부가 현재 장기물 기준 채권시장의 약세를 개선하는데 첫번째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BEI 기준 기대인플레이가 통제되는 것대비 추가적인 경기둔화 압력이 실질금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그림 28>. 실질금리가 높다는 것은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동시에 아직은 양호한 펀더멘탈에 대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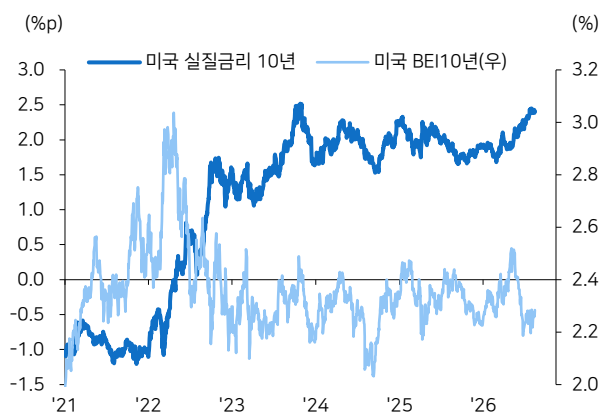
- 기간 프리미엄의 확대는 국채와 회사채 발생증대에 따른 수급부담까지 반영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가+공급 우려 완화'의 조합이 하반기 확인이 중요. 현재 연내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도 미국채10년 금리가 4.7% 부근인 이유<그림 30>.

그림27 미국 긴축 우려 일부 후퇴에도 저신용 채권 스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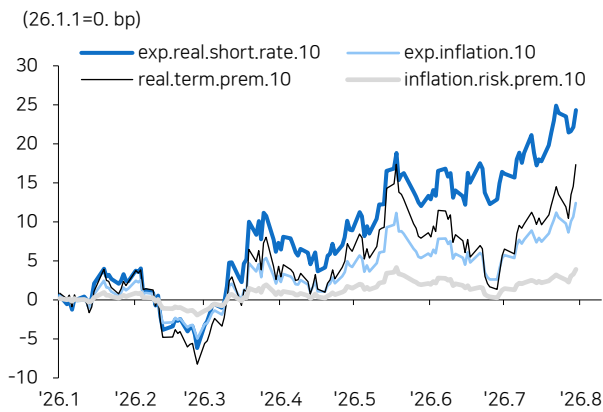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높은 실질금리가 BEI는 누르고 있지만 채권 관심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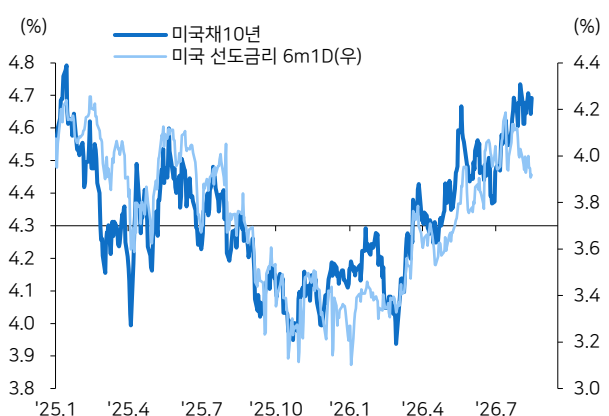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미국채 상승요인, 펀더멘탈 → 수급 불확실성 확산



자료: NY Fed DKW Model,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경기둔화에도 채권의 안전자산 역할 요원한 상황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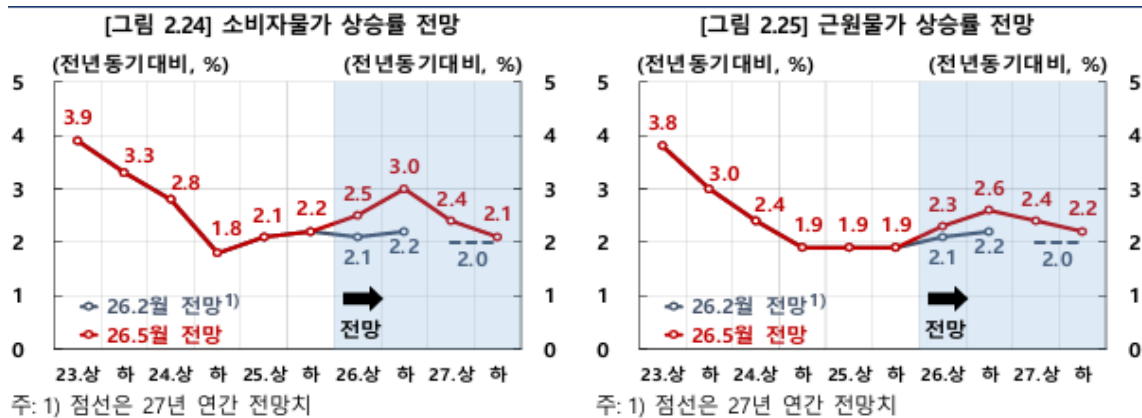
8월 금통위 close call, 현 유가가 그대로 가면 8월 인상 지지할 것

- 우리는 최근까지 보고서를 통해 8월 금통위 결정은 '동결'로 제시. 추가 정보를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우리는 '한은 부총재 선제적 대응' 발언과 '유가 고공행진'을 추가정보로 인정, 이달 인상으로 의견 수정. 8월 물가의 기술적 반등에 80달러대 유가부담이 유입되면, 이달 인상 가능성 증가

- 다만, 이번 달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터미널레이트는 기존 3.50% 그대로 유지. 7월 의사록을 보면,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는 때와 금통위원도 있으나, 금리인상을 서둘러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하자고 하는 신중론자도 1~2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 추가 세부내용은 다음주 보고서에 정리할 것

- 현재 5월에 한은이 제시한 물가 경로에서 유가의 전망의 경로<그림 33>가 다소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한은 물가전망이 성장률대비 강하게 상향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다만, 높은 명목성장과 GDI가 유발할 수요적인 압력은 부각될 것

그림31 올해 5월 제시한 한은 물가경로, 8월에 성장률 못지 않게 근원물가 중심 상향될 가능성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26.5)

그림32 근원물가 올해 2.6%와 내년 2.4% 정도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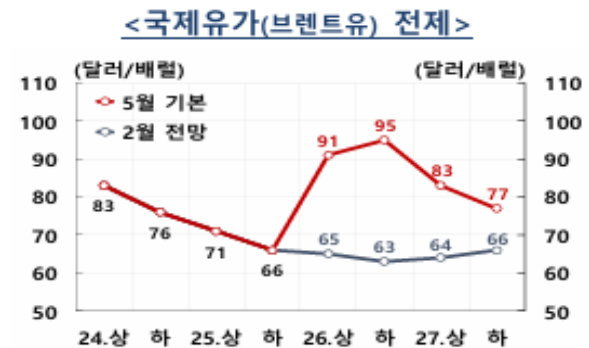
<물가 전망>

	2025 연간	2026 ¹⁾		2027 ²⁾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2.5 <2.1>	3.0 <2.2>	2.7 <2.2>	2.3 <2.0>
· 근원물가 ²⁾	1.9	2.3 <2.1>	2.6 <2.2>	2.4 <2.1>	2.3 <2.0>

주: 1) <>내는 26.2월 전망 기준
2) 식료품, 에너지 제외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조사국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26.5)

그림33 한은 물가전망 위해 전제한 유가는 현 경로보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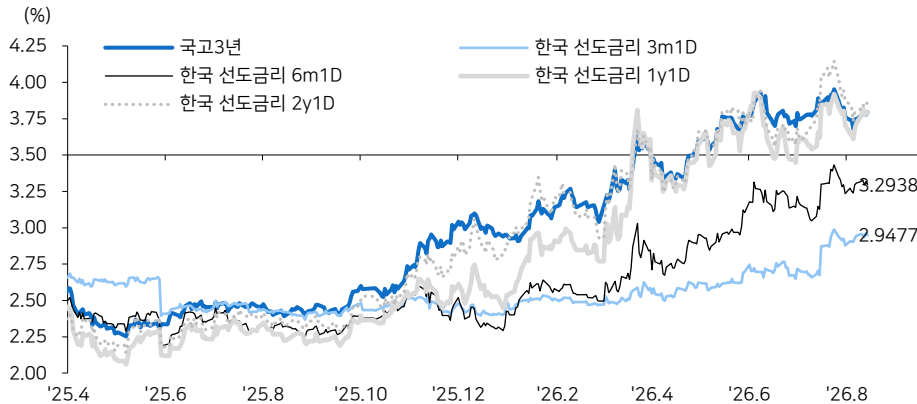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26.5)

- 때문에 소폭이라도 한은은 올해와 내년 근원물가 전망을 상향, 8월에도 연속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수요견인 물가확산을 방어하겠다는 의지 정도를 강하게 피력할 것(그림 31, 32). 현재 시장선도금리는 6개월내 3.25% 인상까지는 반영이 끝났다는 점에서 이달 백투백 인상을 통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 만장일치 인상이나 한은총재가 금리인상의 논거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충격이 유입될 수 있음. 추가하락이나 환율안정보다 부동산 대응이 금융안정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올해 남은 기간 추가상승 강도가 강하지 않을 경우 내년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를 다시 점검해야 하다는 점에서 터미널레이트 상향에 신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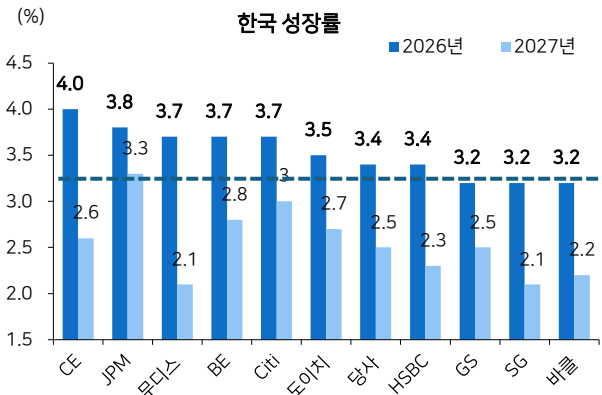
- 국고30년 금리가 10년과 40bp 가까이 확대된 부분은 보험사 수요가 얹아졌고 일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극성이 유발한 과도한 영역으로 판단. 현재 국고발생초장기 부담을 더 낮출 수 없다는 단기적 한계가 있으나, 8월말 내년 예산 가이드라인과 함께 관련된 수급 부담 대응책 나올 수 있다는 점 유념(그림 36)

그림34 연내 기준금리 3.25% 가능성 증대, 그렇지만 1년뒤 3.75%까지는 쉽지 않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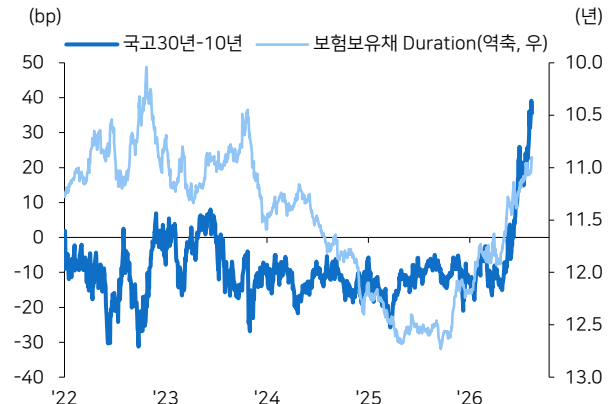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 상향 지속, 내년이 관건일 것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보험사 듀레이션 축소, 초장기 스프레드 과도한 확대



자료: 민평 3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이벤트 및 평가(8월 17일 주간)

- 고유가 리스크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채권금리에 우호적이었던 미국 경제 지표 일정이 한산한 점도 부담. 국내는 글로벌 장기물 약세 반영 예상

표1 금주 이벤트 프리뷰

일자	국가	이벤트	중요도	직전치	코멘트
8월 18일	미국	7월 수입물가	★★	0.3% MoM	석유 제외 수입물가 상승세 유지될 경우 CPI는 안정되었어도 물가 업스트림에서의 비용 압력은 해소되지 않은 걸 수도
8월 18일	미국	7월 산업생산	★	0.1% MoM	ISM 제조업지수가 견조한 것 대비 괴리 존재. 서비스의 강한 개선이 실제 생산 증가세로 연결될지 향후 귀주 주목
8월 19일	영국	7월 근원 CPI	★★	2.6% YoY	성장동력 약화로 서비스 부문 등 기초적 인플레이션 완화 확인된다면 BOE 연내 동결 전망 뒷받침 가능. 글로벌 채권시장의 고유가 부담 일부를 덜어낼 수 있는 재료
8월 20일	미국	FOMC 의사록	★★	—	연준의 집안 싸움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컸는지 확인 되겠지만 최근 확인된 지표의 둔화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 강도를 일부 낮췄다는 점에서 위험적 재료는 아닐 것. 이외 연준 개혁방향 및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 점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